

KC GREENHOLDINGS

2012 NEWS LETTER Vol. 37



Contents

2012.09

• CCS 심포지엄

3

- 9 FMM
- 10MW 건식 착공식

4



• 신문발행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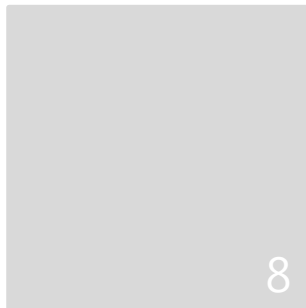
- Glass Frits 첫 수출
- 복숭아 나눔행사

6



- 자원순환 산업전 전시회
- 3차 경영설명회 개최
- 안성유리 탁구장개장

8



2012 CCS Global Symposium 초청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고, KCCSA주관으로 국제 심포지움 "CCS Global Symposium 2012 - CCS & Its Profit" 행사가 2012년 8월 30일(목),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내외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산업화 관련 동향 및 기술교류를 증진하고, CCS 실증·보급 활성화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움에 KC코트렐 이태영 대표이사, 박기서 전무가 특별히 초청되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대용량의 온실가스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기술인 CCS의 상용화를 위하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선진국들의 실증사례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소개받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이에 맞추어 호주의 GCCSI, CO2CRC, 영국의 IEA, 미국의 EPRI 등에서 해외 초청 세미나를 하였고, 오후에는 “KC Cottrell CCS기술의 Portfolio와 사업화”라는 주제로 기술연구소 박기서 전무가 회사대표로 발표를 하였다. 박기서 전무는 발표 후 ” 발표 내용 중 특이한 점은 삼성물산이 영국에 Don Valley Power에 IGCC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여기에 이산화탄소 포집기술을 적용하여 인근의 석유 생산 공정(EOR)까지 연계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것과 IEA에서 발표한 CCS를 CDM범주에서 추진해가는 frame을 만들었다는 점”을 밝히며 이러한 결과 좀더 CCS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늘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CCS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았다.



2012 9월 FMM

9월3일 있었던 KC First Meeting 시간에는 발전민수사업부의 최영희 전무의 “1000 MW급 화력발전소 소개”가 있었다.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 시장의 불황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존 민간 발전사와 건설사들이 발전 시장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실태로 보아, 그 어느 때보다 신규 민간 발전 플랜트 건설 신청이 급증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 따라서 CO2 저감이라는 목표 하에 다양한 대체에너지원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장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전력소모량은 기저부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을 반증하는 것임으로 이를 결국 화력발전 시장의 증가로 이끌고 있는 추세다. 이런 추세에 따라 KC의 화력발전소 시장을 재점검하여 대책방안을 세우는 시간으로, 현 화력발전소 국내 전력 공급 현황을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 현 KC의 시점 및 미래를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특히 1970년 군산화력을 시작으로 꾸준한 수주를 이루어냈던 설비이력을 살펴봄에 KC 현 위상을, 그리고 해외 화력발전소 주요 사례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프로젝트는 이미 지난 2002년 교육과학기술부 협력, 건식흡수제를 이용한 CO2 포집기술 개발 착수가 진행되어 지속적으로 포집 플랜트 설치, 연구, 운영되었다. 그리고 지난 8월 24일 하동화력본부 강당 및 포집플랜트 설치 부지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장과 부군수, 군의원, 한전 CTO, 발전사, 전력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KEPCO ENC 등 객객 약 200명을 초청하여 이에 관련 착공 기념행사가 있었다.



10MW 건식 CO2 포집 실증플랜트 건설착공

KC코트렐은 하동화력본부(8호기 옆)에 10MW 건식 CO2포집 실증 플랜트 건설 공사를 진행한다. 이는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을 통한 Global Top 10 Company 도약과 함께 국제 경쟁기술인 CCS 공정 개발을 통해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남전 홍보, 그리고 세계 최고의 건식 Co2 포집플랜트 착공 기념 및 관계자 노고 치하의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약 23.5m X 19.5m X 54(H) 시설규모의 10MW급 (200톤)용량으로 총 460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은 건식 재생 흡수제 유동층 공정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올해 8월 초 공사 시점으로 내년, 2013년 7월 30일 준공될 예정이다

10MW 연소후 건식 CO2 포집플랜트 첫삽

세계 최초, 최대 규모 플랜트 내년 7월 준공

[250호] 2012년 08월 24일 (금) 17:42:23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건식 CO2 포집플랜트 조감도

[이투뉴스]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10MW급 연소후 건식 CO2 포집플랜트<조감도>가 첫삽을 뒀다. 한국전력은 24일 경남 하동 남부발전 하동 화력발전소에서 이 시설에 대한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에 들어간 플랜트는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융합원천 R&D사업의 일환으로 한전 전력연구원이 총괄 주관기관을 맡고 남부발전과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고 있다.

연소후 건식 CO2 포집기술로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소후 건식 CO2 포집기술이란 재생가능한 건식 고체흡수제를 사용해 연소 배기가스중의 CO2를 유동층 플랜트에서 포집하는 기술이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분야의 혁신기술로 평가받는 순수 국산 기술이다.

이 기술은 2002년 10월부터 교육과학부 21C 프론티어 사업으로 약 8년 6개월간 지원받아 착수된 뒤 2010년 3월 0.5 MW 건식 CO2 포집 시험설비를 하동화력 3호기에 시험설치하면서 연구가 진행됐다.

이후 2010년말부터 지경부 지원으로 10MW 급으로 규모를 키워 R&D사업의 모범 승계사업 모델이 됐다.

이 플랜트가 준공되면 하동화력 8호기 배기가스의 2%에 해당하는 연간 약 7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과 KEPCO E&C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KC코트월이 EPC를 담당해 2013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한전 전력연구원은 준공 이후 흡수제(KEP-CO2P)를 제공해 1000시간 이상 실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소재 및 공정 개선에 필수적인 인자들을 규명하고,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300MW급 기본설계(FEED)를 작성해 향후 남부발전 삼척 그린파워단지에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남부발전은 이 설비에서 포집된 CO2를 저장하는 대신 별도로 미세조류를 배양해 수송연료 등으로 전환하거나 주변지역 온실에 공급해 농작물을 강화 재배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안성유리공업] Glass Frits 첫 수출

안성유리는 지난 8월 2일 준공된 생산시설에서 첨단 유리소재의 원료인 Glass Frits를 생산하여 8월 21일부터 미국으로수출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완 대표이사는 "안성유리가 유리병을 제조한지 40년 만에 새로운 제품인 Glass Frits를 생산하여 수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전 임직원들의 창의적 도전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러한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안성유리가 계속 진화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고 축하하였다.

수출된 Glass Frits는 최종 가공과정을 거쳐 건축용 실란트, 인조목재, 차량용 플라스틱 등의 경량화 충전제로사용된다.



[KCMS] 복숭아 나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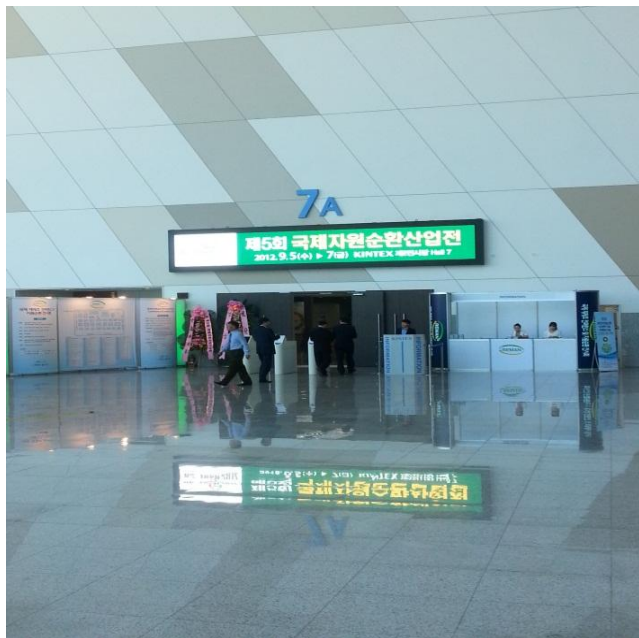
KCMS는 지역사회 나눔행사의 일원으로 공장 근처 과수농가의 복숭아 35상자를 구매하여 인근 보육원과 복지관에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노조부위원장은 30일 과수농가를 찾아가 복숭아를 구매하여 장대비에도 불구하고 구입한 복숭아를 신생보육원과 베다니복지관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CMS는 기업의 사회공헌에 앞장서 이윤창출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5회 자원순환 산업전 전시회

2012년 9월5일, 지식경제부 선정 유망전시회 중 하나인 Re-Tech 제5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시회에 KC코트렐 기술연구소가 참가하였다. 이 전시회는 135개의 국내 재활용, 재제조, 폐기물 에너지 업체가 참가하여 신국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과 폐기물 자원화 에너지화 정책에 발맞추어 자원순환형 체제 구축과 자원순환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산업육성을 목적으로 개최된 전시회다. 이번 전시회에는 특별히 국제전문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세계 공동 관심분야인 자원순환분야의 정책 연대 및 기술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KC코트렐은 대기환경플랜트 전문업체로서 재제조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SCR촉매 재제조 서비스와 현재 개발 중인 RHDS촉매 재제조 개발에 대하여 전시 하여 녹색에너지 생산과 친환경적 순환형 산업구조로 전환에 이바지 하는 기업으로 홍보하였다.



2012 제3차 경영설명회 개최

지난 8월20일, 2012년 제3차 경영설명회가 본사 강당에서 서동영 부사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상반기 경영실적 현황을 살펴보고 하반기 경영계획 그리고 중점추진목표를 수립한 설명회에서는 상반기 실적과 경영현황을 살펴보고 차기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Bag-Filter 시장의 확대에 따라 영입된 마이크로원 관계사 소개도 이루어졌다. 이번 영입은 브라질과 모로코 수주 외의 POSCO 인도네시아 Krakatau 제철소 진출을 위한 새로운 중소형 규모의 집진기 시장 재확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효과적인 협업체계와 기술경쟁력을 위하여 인도, 중국, 대만 수주 및 전로설비용 원형 ESP, SCR촉매 기술개발 MOU 체결, 스크러버 파일롯 플랜트 설치 등의 다양한 상반기 성과에 대해 토의하고 하반기 목표대비 질의응답 및 경영설립 목표를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성유리공업]

임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탁구장 개장

지난 8월 17일 안성유리는 임직원 및 평우회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탁구장을 개장하였다. 이 탁구장은 약 30평의 공간에 탁구대 2대, 라켓, 공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임직원들의 친목과 화합,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관계사 임직원들과도 탁구를 통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탁구장 개장식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안성유리에 재직하는 동안 평우회 회장으로서 회원상호간에 친목도모 및 활성화를 위하여 애쓰셨던 마이크로 원 이봉형 상무에게 평우회 회원 일동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하였고, 새로운 평우회장으로 김성주차장을 추대하였다.



지 원 팀 이 상 민 팀 장
 제 철 사 업 부 김 규 백 사 원
 기 획 팀 윤 제 연 대 리
 해 외 사 업 부 김 재 수 선 임
 관 리 팀 이 정 식 과 장
 임 원 정 문 택 상 무
 관 리 팀 최 성 관 차 장
 기 획 팀 여 주 희 대 리
 재 무 관 리 팀 홍 세 라 주 임
 관 리 팀 서 정 철 부 장
 관 리 팀 박 은 향 사 원
 기 술 지 원 팀 홍 정 희 팀 장
 베 트 남 지 사 염 동 균 법 인 장
 업 무 팀 김 유 화 사 원
 관 리 팀 조 은 주 차 장
 업 무 팀 정 행 순 차 장
 에 너 지 아 이 유 미 사 원
 지 원 팀 배 수 정 과 장
 재 경 팀 이 강 호 대 리
 전 략 구 매 팀 정 희 정 사 원
 지 원 팀 하 혜 진 사 원
 지 식 경 영 팀 이 상 한 사 원

KC NEWSLETTER

Editing Team

www.kc-cottrell.com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